

한국의 鳥羽冠과 중국의 鶲冠 비교연구 -鳥羽插飾의 상징적 의미와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신 경 십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f comparing Korean Jowoo-Guan(鳥羽冠) and Chinese Hal-Guan(鶲冠)

- Focusing on transition and symbolism of the plume in the cap -

Kyeong-Seub Shin

Instruct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Korean Jowoo-Guan and Chinese Hal-Guan and study transition and symbolism of the birds feather in the cap. The culture of ancient Korea was influenced by North Asia prior to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culture. One of the remarkable thing, as the cultural factor of North Asia is the birds worship thought. Korean Jowoo-Guan was derived from the birds worship thought. So in dealing with the plume of Korean Jowoo-Guan, we must recognize Worship to the bird and the symbolical meaning of the bird.

The results of study was as follow.

1. Korean Jowoo-Guan was influenced worship to the sun, so it's wearing symbolized the governing class. As the Social development and governing class, the feathering cap was developed to a gold crown, and also the gold crown of Samguk times had been influenced style of North Asia culture. But afterwards the symbolical meaning of the bird was waning, only decorative meaning was remained.

2. Chinese Hal-Guan was worn in Joo-dynasty, but the symbolism of the plume in the cap was not similar to Korean Jowoo-Guan. Chinese Hal-Guan was symbolized bravery of superfluous soldier than Worship to the bird. But afterwards the symbolical meaning of bravery of superfluous soldier was waning, only decorative meaning was remained.

3. Though neighbor countries have mutually influenced and have similar cultural style, they have symbolism of themselves

Key Words : 새승배사상, 상징, 샤먼, 조우관, 할관

birdsworship thought, symbolism, shaman, Jowoo-Guan, Hal-Guan.

I. 서 론

인류가 관모를 쓰게 된 최초의 동기는 자연환경에서 머리를 보호하고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초기의 관모는 실용적인 의미에서 착용하던 巾과 같이 형태가 단순한 것이었으나 그후 사회가 복잡하게 되자 관은 장식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사회적 산물로서 계급, 의례, 美觀 등을 상징하게 되었다.

관모가 점차 실용성보다는 장식적 요소를 띄우게 된 것은 고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지배층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면서부터이며, 이 후 관(冠)은 신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착용자의 인격과 지위를 상징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을 장식한 여러 가지 부속물들과 장식물은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주는 상징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로 옛부터 옷차림을 '衣冠을 갖춘다'하여 입는 옷에 못지 않게 관모를 중요시 여겼다.

우리나라 관모의 원형인 절풍에 鳥羽나 鳥尾 등을 장식한 조우관은 북방문화적 요소로서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 신라 모두 착용한 수렵사회의 전형적인 상징물이다. 조우관에 장식한 새 깃이나 새꼬리 장식은 유목민족들의 조류승배사상에서 온 사만적 의의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¹⁾, 예술적인 자격이 주어지면 본래의 상징성이 약화되면서 단지 장식적 모티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²⁾ 조우가 가진 상징적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래의 의미가 약화된 듯하다.

조우관의 선행연구로는 주로 형태와 유형을 중심으로 한 형태론적 고찰³⁾과 민간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류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한 민속학적 연구⁴⁾가 있으며, 삼국 및 가야의 조우삽관과 그 사상적 배경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⁵⁾.

이에 본 논문은 조우삽식을 한 우리나라 조우관과 중국의 燭冠을 문헌과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여 조우관과 활관의 조우장식의 변천과정과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첫째, 문헌기록 및 현재 민속에서 볼 수 있는 새가 지니는 상징성을 고찰하여 조우삽식

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한다. 둘째, 연구범위를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으로 넓혀 조우삽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이를 중국의 활관과 비교 연구하여, 조우관과 활관에 장식된 조우삽식의 변천과정과, 상징적 의미를 살펴본다.

II. 鳥羽挿飾의 상징적 의미

새와 관련되는 자료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아시아 기마민족들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⁶⁾. 새 신앙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시베리아·만주·몽고·일본 등 광범한 지역에 걸쳐 있으며, 그 시원은 북방유목 민족의 사마니즘과 연관되는 새 숭배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⁷⁾.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사회의 현상과 신앙형태는 시대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거나 약화되는 경우는 많지만 급진적으로 신앙적 심볼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화시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북방유목민족들의 새 숭배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조우삽식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해보자 한다.

새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상징과 초점은 '날개'이다. 즉 높고 넓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의식세계가 미분화된 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독특한 관점으로 새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해 왔다⁸⁾.

첫째는 태양승배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사신총이나 쌍영총 벽화 등에 해와 달을 새와 토끼상으로 대신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는 고대인의 영혼불멸 사상과 관련된 것이다. 고대인들은 새를 정령의 세계에 사는 영물로 간주하고⁹⁾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새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였다. 「魏志」 등이전에 '以大鳥羽送死'라 하여 큰 새의 날개로 영혼을 실어 보낸다는 기록과 진한 葬儀 풍속에 큰 새의 날개를 시체와 함께 부장 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¹⁰⁾. 시베리아의 샤먼을 받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도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어서 저승에서도 이승에서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장의를 행하고 있다¹¹⁾.

셋째는 신과 인간의 매개자의 역할이다. 새를 천상의 영혼과 육신의 세계를 내왕하는 전달자로 본 것이고, 여기에서 자연히 새를 신성시, 영물시 하는 관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인간과 영혼과의 접촉을 위한 중매자로서 새의 깃(鳥羽)이 등장하였고 솟대에 새를 올려놓는 것은 이와 같이 새를 천계와 현세를 연결하는 매개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매개자로서 새의 신앙은 샤먼의 의상 특히 神帽장식에서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시베리아 샤먼은 그들의 종교의상 상의에 매·백조·갈매기의 모양을 만들어 붙이며¹²⁾. 만주족, 몽고족의 샤먼이 쓰는 신모에도 神鳥를 장식하고, 神衣에는 새날개형 장식을 하는데 그것은 새소리에 의해 善神을 초대하여 샤먼의 체내로 들어오게 하여¹³⁾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새와 관련된 위와 같은 사상은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모의 장식에 새의 날개형이 등장하게 하였고, 고대 관식에 나타난 조우삽식은 지배층의 상징으로 변화하여,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점차 문명사회에 와서는 그 본래의 상징적 의미가 약해지면서 표면적인 상징성만 남게 되었고, 수렵사회와 연관 지으면서 조우삽식은 용맹을 상징하여 무관의 관모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III. 한국의 鳥羽冠

1. 삼국시대의 조우관

조우 장식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최초의 관모는 농경문청동기에 새겨진 인물상에서 볼 수 있으며¹⁴⁾, 조우관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동명왕편에 나오는 부여의 시조인 해모수에 관한 기록으로, 해모수는 머리에 조우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의 칼을 찼다. 신화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약하긴 하지만, 해모수가 머리에 쓴 관과 허리에 찬 검은 태양의 후예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한다¹⁵⁾. 조우관은 가야를 포함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관모의 하나로, 조우삽식 풍속에 대한 문헌적 기록은 중국 사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가야의 출토유

물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魏書」에 기록된 최초의 고구려 조우관을 보면, 謁奢·大奢·大兄·小兄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변형의 관모를 쓰고 조우를 꽂았으며 귀천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¹⁶⁾. 「北史」에서는 조우관을 착용한 인물이 上人層이라고 하였고¹⁷⁾, 「隨書」에서는 使人이라 규정되어¹⁸⁾ 조우관을 쓴 신분 계층을 한정짓고 있다. 「周書」에서는¹⁹⁾ 有冠品者, 「舊唐書」에서는 宮之貴子, 「新唐書」에서는 大臣으로 나와 있어 신분층의 범위가 관직에 있는 귀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있다²⁰⁾.

그러나 「通典」에서는 고구려의 악공인이 紫羅帽에 조우를 꽂았다고 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였으며²¹⁾, 이는 구당서에서도 같은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²²⁾. 「翰苑」에 의하면 고구려는 金羽로서 귀천을 밝혔다고 하는데²³⁾ 이 기록으로 보아 처음에는 조우를 직접 관모에 꽂았으나 실질적인 조우나 조미 외에도 金羽를 장식한 조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료에서 고구려의 조우관은 절풍모에 자연 조우나 金羽를 장식한 것으로, 관직에 있는 비교적 높은 신분의 사람이 이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헌적인 자료를 통해 본 고구려의 조우관은(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데, 감신총의 조우삽관을 착용한 인물은 다른 고분 벽화에서 조우를 꽂은 관모와는 다른 형태의 모자에 조우를 장식하고 있으며, 환두대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사로 보인다. 5세기 중엽으로 보이는 쌍영총 벽화에는 두명의 조우삽관을 쓴 인물을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기마인물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문신으로 보인다. 기마인물상은 무용총에서 보이는 기마인물과는 달리 수렵하는 모습이 아니며, 절풍모로 보이는 관모에 조우를 양쪽에 장식하였다. 문관으로 보이는 인물 역시 기마인물상은 아니나 역시 같은 관모의 양측에 조우를 삽식하였다. 6세기 경의 무용총 벽화의 수렵도와 가무도에서는 5명의 조우삽관을 착용한 인물을 볼 수 있다. 수렵도의 인물은 모두 기마인물로서, 3인은 활을 당기고 있는데, 1명은 조미로 보이는 것을, 다른 2명은 조우를 양쪽에 장식하였다. 또한 수렵을 하지 않고 활을 들고 있는 기마인물 1인은 관모에 조미로 보이는 것을 삽식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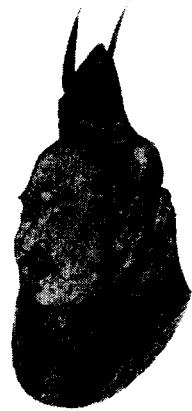
<그림 1>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조우관
「고구려문화에 끼친 北方亞細亞의 영향」

다. 가무도에는 여러 명의 무용수가 보이고 있는데 맨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남자의 관모에 조우가 꽂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무용수는 ‘高麗 樂工人 告紫羅帽 飾以烏羽’라는 「通典」의 기록과 부합되는 것 같다. 개마총에서 보이는 조우삽관의 인물은 葬送行列圖에서 보이는 2인으로, 1인은 점무늬가 있는 관모에 조우를 가삽하였으며, 조우삽관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1인은 공작미로 보이는 金花를 대륜식 입식관에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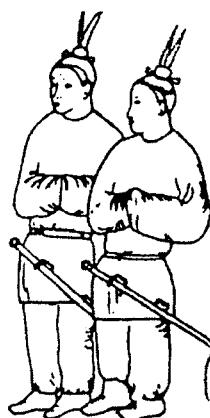
백제의 고분에서는 조우삽관의 실례를 볼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문헌상의 기록이외에는 더 이상 알아 볼 수가 없다. 「三國史記」에도 「北史」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²⁴⁾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복사」 백제조의²⁵⁾ 고구려와 유사하며 朝拜와 제사 때에는 조우를 가식하고 戎事에

는 가식하지 않는다는 기록으로 평상시에 착용했던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의식 때에만 썼던 것 같다.

신라는 문헌상에서 조우삽관의 착용여부를 알아 볼 수 없지만 「수서」에 의하면 신라의 풍속이나 의복이 백제, 고구려와 같다고 한다. 이로써 신라에서도 조우삽관의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고분에서 출토되는 관모에 꽂았던 장식에서 유추할 수 있다. 2개의 조우나 조미를 삽식하는 전형적 조우관은 장회태자 李賢의 묘에 그려진 外國使節圖에 묘사된 신라 사신의 모습(그림 2)과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 있는 벽화에 보이는 신라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그림 3). 금속제



<그림 2> 唐 이현묘 벽화의 신라사절
「금관의 비밀」



<그림 3>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신라사절
「한국복식사」

조우관은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은제조우형 관식과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판에 당초무늬를 투각한 조익형 장식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변진에서 장사를 지낼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기를 기원하기 위해 큰 새의 날개를 매단다는 내용과 일치된다. 또한 황남대총 남분 은관은 대륜식 조우관으로 조익형 입식 좌우에 새의 깃털 장식이 바람에 흔날리는 모양으로 금은판을 꼬아 만들었는데 의성 탑리고분에서 나온 가야의 대륜식 금동관과 그 관식이 유사하다(그림 4)하며, 이는 고구려 개마총 현실 서벽의 인물도에서 보이는 조우관과도 유사하며, 이 같은 조우식은 고구려에서 신라·가야 등지로 넘어 오면서 더욱 장식화되고 의례화 된 것이 아닌가 한다²⁶⁾.

가야복식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金官 가야의 金冠의 뜻으로 추정할 만큼²⁷⁾ 많은 종류의 금관류가 출토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의성 탑리 고분의 대륜식 조우관 외에 좀 더 날카로운 톱니 모양으로 변형된 것처럼 보이는 양산 부부총 출토 백화수피제 조우관, 창녕 고분 11호분 출토 은제 조우식, 경북 성주 성산동 1호분 출토 은제 조우식, 달성 비산동 제 55분 금동제 조우식이 등이 있으며, 이로 미루어 새 숭배 사상의 성격을 띤 신앙이 조우삼관의 관념적 배경으로 존재하였던 것이



<그림 4> 의성탑리 1호분 금동관
「금관의 비밀」

아닌가 한다²⁸⁾.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백제는 사서에서 보았듯이 관모에 있어서 고구려와 같은 형태이며, 신라·가야도 금관과 금관에 장식된 조우형 및 조익형 관식 그리고 백화수피모를 통해서 고구려와 동일한 양식의 관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구려 이 삼국의 관모는 거의 같은 종류와 형태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점차 조우장식 등 외형에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문현상에서 본 조우삼관의 착용자 신분층은 귀족과 관직자이며, 왕

<표 1> 삼국의 조우관에 관한 인용문헌

국가	서명	모체	장식물	착용자의 신분
고구려	魏書	절풍	勞插鳥羽	謁奢·太著·大兄·小兄
	周書	소꼴	挿二鳥羽於其上	有冠昂者
	隨書	피관	加插鳥羽	使人
	北史	절풍	挿二鳥羽	士人
	翰苑	책	金羽 金銀爲鹿耳加之幘上	貴子
	通典	자라모	飾以爲羽	樂工人
	舊唐書	라관, 비라관	挿二鳥羽	冠之貴子
	新唐書	자라모	飾以爲羽	樂工人
백제	北史	고구려와 동일	加翅	
	舊唐書	오라관	金花	왕
		라관	銀花	6두품 이상
신라	隨書	고구려와 동일	고구려와 동일	고구려와 동일

의 수렵시에 수행하던 사람과 사신으로 외국에 나갈때에도 착용했다고 본다.

삼국시대의 조우관은 새 송배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귀족의 상징적 장식물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모의 장식에 새의 날개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신라금관에 새를 장식해 놓는 것과 현대 한국 사람들이 솟대를 세우는 것은 모두 같은 목적에서 생겨난 기복행위인 것이며, 이는 새를 천계와 현세의 매개자로 보는 신앙에서 연유한다²⁹⁾고 한다.

2. 고려, 조선의 조우장식

1) 고려의 조우장식

고려시대에도 조우를 관모에 장식하였음을 볼 수 있다. 海東繹史의 기록을 보면³⁰⁾ 일반인들은 四葉青衫을 착용할 때 笠 정상에 조우 장식을 하고, 扈杖人은 삽우하지 않는다. 또한 몸집이 큰 의장병은 大帽·黃布衣·條帶를 착용하였는데 조우를 장식하지 못한다는것으로 보아 전에는 조우를 모자에 꽂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우의 삽식 외에 고려에는 금화를 모자에 장식한 金花大帽가 있다. 고려도경에 龍虎左右親衛軍將의 관모에 금화식을 했다는 것과 神虎左右親衛軍과 興威左右親衛軍이 금화대모를 썼다고 하는 기록을³¹⁾ 볼 수 있는데, 수렵시대의 插鳥羽가 농경시대로 전이하면서 插花飾으로 형태가 변화되었다고³²⁾ 한다면 고려시대에 보이는 금화대모는 이러한 조우삽식의 유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단지 삼국시대의 조우 장식의 상징적 의미는 약화되거나 거의 사라지고, 단순한 무관의 상징으로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말 우왕 13년 관복개정 시행시 입모가 공복에 등장하는데³³⁾, 이것이 공작우를 장식한 조선 전모의 전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2) 조선의 조우장식

조선시대에도 입자에 삽우를 한다는 기록을 볼 수 있어, 형태는 다르지만 관모에 조우를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經國大典」 禮典 雜令에 보면 초립에 대하여 나왔는데 별감용의 초립은 은각에 종

두리를 두르고 양편에 孔雀尾와 虎鬚를 꽂아 장식하고 주황칠을 하였다고 한다³⁴⁾. 이 초립은 양반과 서민 모두가 썼으나 재료의 차이에 따라 신분의 구별을 하고 있으며, 흑립이 생겨나자 자취를 감추어 별감을 위시하여 궁정의 가동 등이 왕이 사냥할 때나 나들이 할 때, 도중에 주악을 베풀 때 착용하였다고 한다³⁵⁾.

朝鮮上朝實錄에 기록된 宣祖 30년 插羽笠制와 戎服制 논의에³⁶⁾, 전립에 깃을 꽂는 것은 오랑캐 풍속에서 나온 것이라 고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선조가 모자에 깃을 꽂는 제도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나 고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조소를 하더라도 해롭지 않다라는 기록이 있어 조우삽식의 유풍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우삽식의 본래의 상징적 의미는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립은 주로 서북지방에서 착용되다 조선 중엽 이후 무관의 용복에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인조 5년 이후 문관과 사대부들도 착용하였는데, 품위가 높은 사람들은 모로 만든 전립에 공작미, 옥로 등의 장식을 달았다. 또한 영조 대를 전후로 말총이나 가는 대로 만든 사립 혹은 竹戰笠이 유행하여 이를 금하였다는데, 공작의 깃을 양태 위로 내려뜨린 죽전립을 쓴 哲宗의 어진에서 볼 수 있듯이(그림 5) 조우삽식의 유풍은 조선 말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青莊館全書」에 용복 중에 말꼬리와 돋지털



<그림 5> 철종의 어진, 「한국복식문화사」

로 만든 갓에 虎鬚와 翠羽를 장식하는 것은 개정해야한다는 기록이 있고³⁷⁾ 「萬機要覽」에 禁軍은 轉羽와 秀羽를 전립의 정자에 달았다고 하였는데³⁸⁾, 여기서 翠羽와 轉羽는 孔雀羽를 말한다. 이처럼 공작의 깃털은 조선 무관 전립의 장식품으로서, 전립에 공작털 하나만을 장식하거나 다발로 만들어 달았는데, 이 역시 본래의 의미는 상실했지만 새의 깃털장식과 용맹성의 연관성을 가진 고대의 조우삽식 풍습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상에서 종합하여 보면 조선시대에도 관모에 새의 깃털 장식을 하였으며, 이는 삼국시대 조우삽식의 유풍이 남아 무관의 관모에 남아 있는 것이라 생



<그림 6> 국사당 12곳거리 중 작두거리 무녀의 전립
「한국복식문화사전」



<그림 7> 무녀의 雉尾장식
「한국인의 상징사전」

각된다. 조선시대 무녀 역시 공작의 깃을 단 전립을 썼는데, 조선시대 國師堂 12곳거리 중 작두거리, 별성거리, 창부거리 등에 나타난 무녀복에서 볼 수 있다(그림 6). 이는 신기를 빙들어 신과 교섭할 수 있는 사제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 하며³⁹⁾, 오늘날의 巫人의 모자에 장식된 雉尾羽에서 그 유풍을 볼 수 있다(그림 7).

IV. 중국의 鶲冠

1. 고대의 활관

중국에서 조우삽식을 한 관에 대한 최초 기록은 趙나라 武靈王 때이다. 「淮南子」에 기록되기를 '조나라 무령왕은 貝帶를 차고 駿儀를 썼다고 했는데, 준의는 神鳥이며 날면 빛이 하늘을 빛나게 한다는⁴⁰⁾ 기록으로 보아 조류승배사상의 서상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관을 의미하는 것 같다(그림 8). 여기서 준의란 준의의 尾羽를 꽂은 관으로, 鷩鳥, 雉, 駿儀, 鶲鳥라고도 부르는데⁴¹⁾ 이들 모두가 야생 猩의 일종에 속하는 사나운 새이다.



<그림 8> 趵 武靈王의 호복과 활관 복원도
「中國古代軍戎服飾」

활관은 秦代와 漢代에도 착용되었으며, 「後漢書」여복지에 의하면⁴²⁾ 武冠은 大冠으로, 鶲尾를 관 좌우에 장식하여 五官虎賁·羽林五中郎將이라고 일컬어지는 羽林左右監과 虎賁武騎는 모두 鶲冠을 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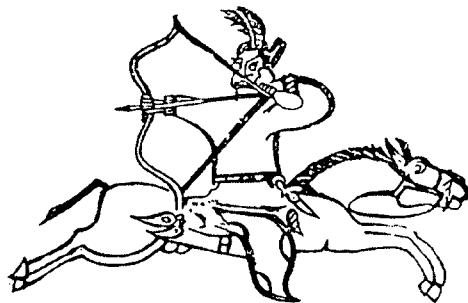
는데, 이는 조나라 무령왕이 싸울 때는 반드시 하나가 죽어야 싸움을 그치는 할조의 사나움과 용감함을 빗대어 그 尾羽로 무사의 冠을 장식하도록 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鳥羽를 冠에 꽂아 무인의 용맹스러움을 상징한 것이다(그림 9). 이처럼 할 혹은 준의의 尾羽를 관에 꽂은 관을 모두 鳥冠 혹은 駿驥冠이라 부르며, 이는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조우관과 유사한 형태라 볼 수 있으나, 단지 특별한 새의 명칭을 사용한 관의 명칭이 다를 뿐이다.



<그림 9> 戰國武騎의 할관
「中國古代服飾史」

漢代의 虎賁과 羽林은 군에 소속된 中郎將을 말하는데, 호분은 그들이 달릴 때 빠르기가 마치 호랑이가 맹렬히 달리는 것 같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며, 우립은 깃털처럼 빠르고, 숲처럼 많다(如羽之疾, 如林之多)란 의미로, 대부분 군영에서 재능이 높거나 혹은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의 자제들을 뽑아 충당했고 左右監羽林으로 나누었다. 虎賁과 羽林에 소속된 무사들은 대를 이어 세습되었는데, 이들은 할관과 준의관을 쓰고 天子의 궁문을 지키고 가까이서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⁴³⁾. 「漢書」⁴⁴⁾에서도 꿩의 용맹함과 사나움을 들어, 할조의 尾羽를 관에 꽂아서 용맹하게 잘 싸우고 죽어도 굴복하지 않음을 나타내었으며, 호분과 우립이 할관을 쓰는 의미를 설명하였다(그림 10).

「晉書」에 鳥冠은 鳥尾 한 쌍을 양 옆에 수직으로 꽂는다고 기록되어 있고⁴⁵⁾ 南北朝 시대에도 武騎와



<그림 10> 漢초기의 할관
「中國古代服飾史」

虎賁은 여전히 鳥尾를 冠에 꽂았다는⁴⁶⁾ 기록으로 미루어 할관은 趙나라 때부터 남북조시대까지는 무인을 상징하는 관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隋·唐代부터는 鳥尾를 이전처럼 즐겨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衛仗 중에는 여전히 鳥冠을 쓰는 사람이 있었고 孔雀尾로 바꿔 꽂는 경우도 있었다.⁴⁷⁾ 西安昭陵 唐長樂공주 묘의 벽화 중에 투구에 우모를 장식한 무사의 모습에서 새의 깃으로 관을 장식하는 유풍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으나⁴⁸⁾, 용맹함이나 민첩함을 상징하기보다는 단순한 의장용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된 것 같다.

2. 宋, 元, 明, 清의 조우장식

宋代「天籟閣舊藏宋人畫冊」의 明妃出塞圖에 雄尾 하나로 장식한 鏡帽⁴⁹⁾, 《水湖志》 제56회에 雁翎鎮子甲을 흡치는 내용⁵⁰⁾ 그리고 「朴通事」의⁵¹⁾ 송나라 때 강남의 사민들이 麥鷄의 깃털로 관모를 장식했다는 기록에서 조우삽식의 유풍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元代 蒙古族의男女冠에도 여전히 雄尾를 꽂은 것이 있는데 반드시 두 개를 꽂기보다는 많이 꽂을수록 귀한 직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⁵²⁾. 고귀한 사람들은 송의 채색비단으로 장식을 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꿩 깃털을 사용했다는 기록에서⁵³⁾ 조우삽식은 그 본래의 상징성이 약화되어 변방민족의 장식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보기도 하지만 明初 朱有燉이 쓴「元宮詞」에 묘사된 것과 같이⁵⁴⁾ 꿩 깃이 장식된 고고관은 몽고족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장식 같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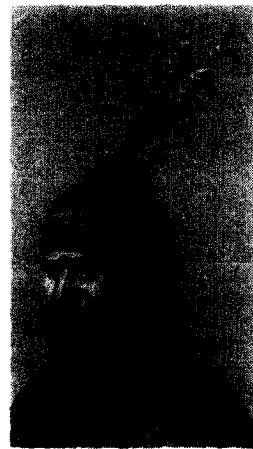
<그림 11> 元 귀족의 고고관
「中國古代服飾史」

관모의 조우삽식은 수대 이후 거의 없어졌다 明代부터 정식 제도화되어 다시 나타났다⁵⁵⁾. 명대의 品官이 쓰던 篠巾貂蟬冠은 古代 武弁大冠의 遺制로、七梁冠을 쓰는 품계에 속하는 官員은 冠의 左邊에 雄尾를 꽂았으며⁵⁶⁾(그림 12), 또 都督에 속하는 무장 등도 紅笠에 靛染을 한 백조 깃털을 꽂았으며, 三英·二英·一英으로 나눠 신분을 구분하였다⁵⁷⁾. 이처럼 명대의 무관들이 새깃을 꽂는 제도는 고대의 虎賁武士들이 雙鵠尾를 꽂았던 것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명대는 신분을 구분하는 장식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고, 이 전립이 우리나라 고려 말에 수용되어 조선으로 연계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림 12> 明 貂蟬籠冠
「中國歷代服飾」

淸은 왕조 성립 이전부터 武將이 쓰는 투구나 모자에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尾羽를 꽂았는데, 많이 꽂을수록 직급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淸 왕조 성립 후에는 明代의 形制를 답습하여 관리는 공작 깃이나 할조 깃으로 만든 조우로 관을 장식했는데, 이를 鶻子라 하였으며 이것으로 관직의 등급을 구별하였다⁵⁸⁾. 공작깃 끝에 삼안(동그란 것을 눈이라 함)이 있는 것은 패자(황제의 아들에게 주는 관직명)가 적용하고, 이안과 일안은 아래 계급이 적용한다⁵⁹⁾. 6품 이하는 할조로 만든 남색 깃털을 꽂아 구별했으며, 이를 雕翎、藍翎 혹은 老鵠翎이라 하였다⁶⁰⁾. <그림 13>, <그림 14>.



<그림 13> 清 무사복원도
「中國古代軍戎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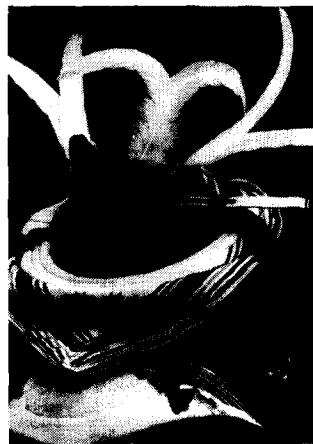
<그림 14> 孔雀羽를 장식한 清 凉帽
「中國古代軍戎服飾」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개의 雞尾를 꽂은 雞冠이나 雞儀冠을 쓰는 것은 대체로 周末에 기원을 두고 전국시대·진대·한대를 거쳐 위·진·남북조시대까지 성행했으며 수·당대 이후에는 儀仗用으로 변했다. 즉 수·당대 이후로 관이나 모자에 雞尾를 꽂는 상징적 의미가 약간씩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에 치마나 혹은 기타 새의 깃털을 꽂는 것은 용맹하고 민첩함을 표시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서 아마 장식적인 의미가 커졌던 것 같고, 명대 이후 제도화되어 관리의 신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여, 많이 꽂을 수록 직급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꿩이나 공작 등 새의 깃을 장식한 할관의 유품은 오늘날 중국 소수민족의 모자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어, 많은 경우 자신들 고유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새의 깃털을 그대로 장식하는 경우도 있고, 새의 형상을 닮은 모자를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새 토템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봉황을 숭상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白族 여성들의 봉황모, 舟族 여성들의 화려한 봉관, 서남 지역의 蘇族과 哈尼族의 雞冠帽 등은 모두 새 숭배사상에서 남겨진 모자들이다⁶¹⁾. 海南島 黎族인의 雞尾를 꽂은 小花笠, 臺灣省의 남자와 琉球群島의 부녀자들의 雞尾를 꽂아 장식한 繢笠, 新疆省 布魯特에 사는 부녀자들의 雞尾 장식, 세 개의 깃털을 꽂아 장식한 藏族 여성의 모자, 苗族 남자의 雞尾 수식 등은 고대 조우삼식에서 남겨진 풍습의 잔재이며, 특히 정의 깃을 다발로 꽂아 머리에 장식한 島족 남자의 雞尾장식은 수렵생활의 능력과 용맹성을 상징한다⁶²⁾〈그림 15〉〈그림 16〉.

할관의 혼적이 남겨진 또 하나는 중국의 戲劇인 경극에서 사용하는 翎子이다〈그림 17〉. 영자는 청대 조우삼식의 명칭과 동일하지만 길이가 훨씬 긴 형태로 변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의 왕이나 장군 등이 착용하며, 직급이 낮은 인물이 사용할 때에는 짧은 영자 하나만을 꽂는다⁶³⁾. 이는 변방 소수민족의 새 숭배 사상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周錫保는 지적하였는데⁶⁴⁾, 아마도 북방 유목민족의 조우



〈그림 15〉藏族 여성의 조우 장식
「中華民族服飾文化」



〈그림 16〉묘족 남자의 雞尾장식
「中國民間美術全集」



〈그림 17〉경극의 翎子 필자촬영

삽식의 풍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조우삽식을 한 우리나라 조우관과 중국의 할관을 문헌과 출토유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여 조우관과 할관의 조우장식에 대한 변천과정과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재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관식을 살펴보았다.

고대인들의 새는 태양숭배사상, 영혼불멸,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초점은 새의 날개였다. 이로 인해 새는 생활 속에서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호신, 길흉화복의 안내자로 재생, 영예로움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새 신앙은 시베리아 샤먼의 종교 의상에까지 나타났으며, 북방 유목민족의 조우삽관의 풍습은 여기에서 유래하였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우관 역시 이들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우관은 중국의 문헌과 고분벽화, 출토유물 등에서 볼 수 있는데, 고구려는 2개의 천연조우나 조미를 삽식한 조우관이었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금속제 조우삽식으로 변화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와 유사하며 특히 제사 때에 조우관을 사용하였다. 신라는 천연 조우나 조미를 삽식한 조우관, 금속제 조우식을 삽식한 금속제 조우관, 대륜에 조우식을 세우는 대륜식 조우관 등이 있었으며, 가야 역시 금관가야라 할 만큼 금속제 조우관과 대륜식 조우관이 있었다. 신라와 유사한 형태의 조우장식 금관이 있으며, 이들 금관에는 새 숭배 사상의 성격을 띤 신앙이 관념적 배경으로 존재하였던 것 같다.

초기의 조우삽식은 새 숭배사상이 반영되어 새신앙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나, 삼국시대에 와서는 새와 관련된 태양숭배사상의 의미에서 변화, 발전하여 지배층의 상징으로 변화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조우삽식을 한 기록이 있으나, 이미 장식적 성격을 띠어 본래 조우삽식에 관련된 새의 상징적 의미는 약화되거나 상실되었고, 단지 수렵문화와 연관지어 무관의 의장용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우삽식의 유풍은 조선말까지 지속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무녀의 모자 장식에 한 꿩 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할관은 우리나라 조우관과 유사한 형태로 주나라 무령왕 때부터 사용되었다. 할관 역시 초기에는 새 숭배 사상의 서상적 의미가 내재되어 사용된 듯하나, 점차 사납고 용맹한 할조 본래의 동물적 기질을 이입하여, 무관의 관식으로 사용하였다. 전국시대, 진대, 한대를 거쳐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할조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즐겨 사용되었으나, 수·당시대 부터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단순한 의장용으로 변하여 모자에 雄尾를 꽂는 상징적 의미가 약간씩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대에는 잠시 귀족계급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명·청 시대에는 전립 등에 사용되어 무관을 상징하였다. 조우삽식을 한 관식은 중국 소수민족의 두식과 경극에서 사용되는 翎子에서 볼 수 있다.

북방 유목민족의 새 숭배사상이라는 유사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조우관과 할관으로 명칭부터 달리 출발한 한국과 중국의 조우관의 풍습은 그 의미를 달리하며 변화되었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조우관은 우리민족의 적극적인 품성과 무풍적인 활달한 기개를 상징하는 관모로 귀족을 상징하였고, 신라와 가야의 금관은 새 숭배사상의 신앙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조우관으로 역시 지배계층을 상징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의 할관은 반드시 하나가 죽어야 싸움을 그치는 할조의 공격적인 기질을 이용하여 용맹과 민첩함을 갖추어야 하는 무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려·조선의 조우장식과 중국의 송·원·명·청의 조우장식은 단순히 무관의 의장용으로 장식되었던 것 같으며, 문화의 교류와 사여관복의 제도로 인해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변화, 쇠퇴하였던 것 같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인접한 국가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공유하는 양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민족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소 부족하지만 본 연구가 한국과 중국의 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본을 포함한 삼국의 복식문화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및 미주

- 「三國史記」卷三十三 色服條
- 「三國志」魏書 卍辰傳
- 「高麗史」卷七十二, 志卷 二十六, 輿服 一
- 「朝鮮王朝實錄」卷九十二 宣祖三十年九月
- 「魏書」卷一白 列傳 八十八 高句麗
- 「北史」卷九十四 列傳 八十二 高句麗, 百濟
- 「隋書」卷八十一 列傳第四十六 東夷
- 「周書」卷四十九 列傳 四十一 異域 高麗
- 「舊唐書」卷一百九十九上 列傳第一百四十九上 東夷, 百濟
 卷二十九 音樂志
- 「新唐書」卷二百二十 列傳第一百四十五 高麗
- 「通典」卷一百四十六 樂五 四方樂散樂
- 「海東釋史」卷二十
- 「宣和奉使 高麗圖經」卷第十一 伎衛條
- 「史記」卷一百二十五
- 「漢書」卷五十七 〈司馬相如列傳〉, 卷八十九 〈循吏列傳〉
- 「後漢書」卷三十 輿服(志)下
- 「青莊館全書」卷之六十一, 論諸笠條
- (元)馬端臨撰:《文獻通考》五九《虎賁中郎將》, 商務印書館, 《十通》本, 1936.
- (唐)房玄齡等撰:《晉書》卷二十五《輿服志》
- 周錫保, 鶴冠考略 -從戲曲人物的二根野鶴毛談起-, 戲劇藝術 1期, 1979, pp.71-75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中國戲劇出版社, 1983.
- 周迅·高春明, 中國歷代服飾, 上海:學林出版社, 1994.
- 黃能馥·陳娟娟, 中國服裝史, 北京:中國旅遊出版社, 1994.
- 劉永華, 中國古代軍戎服飾,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
- 中國民間美術全集 穿戴編 5 服飾卷 上, 山東教育出版社·山東友誼出版社, 1993.
- 中央民族學院(編), 中華民族服飾文化, 北京:紡織工業出版社, 1992
- G. Nioradze, 이홍직 역, 시베리아 제민족의 원시종교, 신구문화사, 1976.
- M.A. 차플리카, 이필영 역, 시베리아의 샤마니즘, 탐구당, 1984.
- 姜淳弟, 軍服 冠帽에 관한 연구 -전립의 수용·발전·쇠퇴의 과정을 중심으로-, 學藝誌, 1995, pp. 129-147
-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4.
- 김문자, 三國時代 烏羽冠 -變形 烏羽冠을 中心으로-, 수원대학 논문집 제5집, 1987, pp.237-245
-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민족문화사, 1994.
- 김병모,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1998.
- 김양우,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양의 연구 - 새와 사슴문양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11, 1981.
- 김영숙·손경자 공편,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 II,

교문사, 1982.

- 김예지, 권영숙 조선조의 두식,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4집,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1978.
- 박호원, 솟대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6(미간행)
- 서재명, 건국신화에 나타난 새의 의미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미간행)
- 신경섭, 경극 〈獨木關〉의 연개소문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미간행)
- 신경섭, 중국 소수민족의 모자, BESTO 三國文化情報志, pp.48-53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1977.
-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 이용범, 고구려인의 조우삽관에 대하여, 동국사학 제 4집, 1956
- 이은창, 한국고대벽화의 사상적인 연구 -삼국시대 고분벽화의 사상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16집, 1985, 417-491
- 임동권, 의복에 나타난 민속성, 服飾 35, 1997, pp.367-369
- 임명순, 고구려문화에 끼친 北方亞細亞의 영향-특히 조우삽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1
-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 진미희·권영숙, 우리나라 烏羽插冠과 思想의 背景, 服飾 21, 1993, pp.129-142
- 하효길, 새(鳥)·龍王船考 -새와 용왕선의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1979, pp.163- 177
- 한국문화상징사전 1, 2, 동아출판사, 1996.
- 한병삼, 1976, 農耕文青銅器에 대하여, 韓國史論文選集 I, pp.258-259

- 1)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8
- 2)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p.154
- 3) 김문자, 三國時代 烏羽冠 -變形 烏羽冠을 中心으로-, 수원대학 논문집 제5집, 1987, pp.237-245
김영숙, 고구려 관모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Vol 5, 1966, pp.756-766
- 4) 이용범, 고구려인의 조우삽관에 대하여, 동국사학 제 4집, 1956
임명순, 고구려문화에 끼친 北方亞細亞의 영향-특히 조우삽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1
박호원, 솟대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6
서재명, 건국신화에 나타난 새의 의미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하효길, 새(鳥)·龍王船考 -새와 용왕선의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1979, pp.163-177

- 5) 진미희 · 권영숙, 우리나라 烏羽插冠과 思想의 背景, 服飾 21號, 1993, pp.129-142
- 6) 김병모,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1998, p.108
- 7) G. Nioradze, 이홍직 역, 시베리아 제민족의 원시종교, 1976, 신구문화사, pp.43-56
- 8)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4, pp.163-192 참고.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1996, pp.410-414 참고.
- 김병모,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1998, pp.108-126 참고.
이은창, 한국고대벽화의 사상적인 연구-삼국시대 고분
벽화의 사상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16집,
1985, pp.417-491
- 박호원, 솟대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
사학위논문, 1986(미간행)
- 9) M.A. 채플리카, 이필영 역, 1984, 시베리아의 샤마니즘,
탐구당, p.127
- 10) 三國志 魏書 弁辰傳 : 以大烏羽送死 其欲死者飛場
- 11) G. Nioradze, 이홍직 역(1976), p.26
- 12) 전계서, p.99, 115
- 13) 전계서, p.104
- 14) 김문자, 한국복식 문화의 원류, 민족문화사, 1994, p.56
- 15) 한국문화 상징사전 2, 두산 동아, 1996, p.22
- 16) 「魏書」卷一百 列傳 八十八 高句麗：官名有謁奢 大奢
大兄 小兄之號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烏羽 貴賤有差
- 17) 「北史」卷九十四 列傳 八十二 高句麗：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烏羽 貴者其冠曰蘇骨
- 18) 「隋書」卷八十一 列傳第四十六 東夷：人皆皮冠 使人
加插烏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 19) 「周書」卷四十九 列傳 四十一 異域 高麗丈夫衣同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其冠曰蘇骨 多以紫羅爲之 雜以
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插二烏羽於其上 以顯異之。
- 20) 「舊唐書」卷一百九十九上 列傳第一百四十九上 東夷：
衣裳服飾 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
咸以金飾 宮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烏
羽 及金銀爲飾 衫筒袖 褒大口 白韋帶 黃革履。
「新唐書」卷二百二十 列傳一百四十五 高麗：王服五
采 以白羅製冠 革帶 皆金釦 大臣青羅冠 次緋羅 珥兩
烏羽金銀雜釦。
- 21) 「通典」卷一百四十六 樂五 四方樂散樂
東夷二國高麗百濟 高麗樂工人 皆紫羅帽飾以烏羽。
- 22) 「舊唐書」卷二十九 音樂志
임명순(1981), 재인용
- 23) 張楚金(撰), 雍公叢(注)(唐), 「翰苑」, 「遼海叢書」4卷,
瀋陽: 遼瀋書社, 영인본, 1985, p.2519
- 24) 「三國史記」卷三十三 色服條
- 25) 「北史」卷九十四 列傳 八十二 百濟
(百濟)衣服飲食與高麗略同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
翅 戎事則不
- 26) 김문자(1987), p.239
- 27) 유희경, 김문자(1998), p.67
- 28) 진미희 · 권영숙(1993), p.140
- 29) 김병모(1998), p.114
- 30) 「海東釋史」卷二十
民戴草帽領皆垂珠頂纏圓方色皆黑皂則穿四葉青衫頂加
插羽庸人則衣數重麻布步曳長裾皂與四葉衫惟平安黃
海二道者如此京畿則不然曳杖之人皆選其長身者亦大帽
穿黃色土布員領繁條但不插羽。
- 31) 徐兢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第十一 仗衛條
龍虎左右親衛將軍 亦服毬錦袍 塗金束帶幘頭兩脚折而
上右勢微屈飾以金花
神虎左右親衛軍 服毬文錦袍 塗金束帶 金花大帽 興威
左右親衛軍 服紅文羅袍以五采團花點樣爲飾 金花大帽
- 32)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1977, p.318
삽… 무릇 관모에 삽식하는 풍습은 상고시대부터 우
리나라에 있었다. 그것은 수렵시대에 조우를 끊는호족
계통의 풍습인 삽조우에서 농경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식물형태를 모상으로 하여 삽화식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다. 그리하여 복두에 첨화한 풍습이 고려시대부터
있어온 것은 위 고려시대 복식에서 이미 보아 왔다.
- 33) 「高麗史」卷七十二 志卷 二十六 輿服 一
東西 七品 以下 鮻帽絲帶……西班牙六品 高頂笠 鮻
帽絲帶
- 34) 김예지 · 권영숙, 조선조의 두식,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4집, 부산대학교가정대학, 1978
- 35)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p.365
- 36) 「朝鮮王朝實錄」卷九十二 宣祖三十年九月
김영숙 · 손경자 공편,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 II,
교문사, 1982, p.137
- 37) 「青莊館全書」卷之六十一, 論諸笠條
…戎服中馬尾虎鬚翠羽等飾 尤改正者也…
- 38) 姜淳弟, 軍服 冠帽에 관한 연구 - 전립의 수용·발전·
쇠퇴의 과정을 중심으로-, 學藝誌, 1995, p.142 재인용
- 39) 한국문화상징사전, p.128.
- 40) 「史記」卷一百二十五 第十冊 第3191頁.
- 「侯幸列傳」: 故孝惠時郎侍中皆冠駿驥 貝帶。
「淮南子」云: 趙武靈王服貝帶駿驥。
「集解」: 《漢書音義》曰: 駿驥, 鳥名, 以毛羽飾冠, 以
貝飾帶。
「索隱」: 應劭云: 鳥名, 毛可以飾冠。許慎云: 驪鳥也。
「漢官儀」云: 秦破趙, 以其冠賜侍中。
「三會」云: 駿驥, 神鳥也, 飛光映天者也。
- 41) (漢)班固撰 · (唐)顏師古注: 「漢書」卷五十七 〈司馬相如
列傳〉, 中華書局, 1962年, 第八册 p.2542.
〈子虛賦〉: 择翡翠, 射駿驥, 顏師古注: 駿驥, 驪鳥也。

- 似山鷄而小冠，背毛黃，腹下赤，項綠色，其尾紅赤，光采鮮明，今俗呼爲山鷄，其實非也。
- 42) 「後漢書」卷三十 輿服(志)下，中華書局，1965年。
 武冠，俗謂之大冠。環櫻無蕤，以青系爲緹，加雙鵠尾，豎左右，爲鵠冠云。五官、左右虎賁·羽林·五中將·羽林左右監皆冠鵠冠。紗縠單衣。虎賁將虎文綺，白虎文劍佩刀。虎賁武騎皆鵠冠。虎文單衣。襄邑歲獻織成虎文云。鵠者，勇雉也。其斗對一死乃止，故趙武靈王以表武士，秦施之焉。
- 43) (元)馬端臨撰「文獻通考」五九《虎賁中郎將》，商務印書館，「十通」本，1936，p.536
- 44) 「漢書」卷八十九，第十一冊 第3633頁。
 〈循吏列傳〉：時京兆尹張敞舍鵠雀飛集丞相府，顏師古注：武賁鵠色黑，出上黨，以其斗死不止，故用其尾飾武臣首云。今時俗人所謂鵠鷄者也。
- 45) (唐)房玄齡等撰：「晉書」卷二十五 輿服志，中華書局，1974，第3冊 p.770
 鵠冠，加雙鵠尾，豎插兩邊。鵠，鳥名也，形類鶴而微黑，性果勇，其斗到死乃止。上黨貢之，趙武靈王以表顯壯至秦漢，猶施之武人。
- 46)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中國戲劇出版社，1984，p.132
- 47) 周錫保，鵠冠考略 - 從戲曲人物的二根野鷄毛談起-，戲劇藝術 1期，1979，p.72
- 48) 劉永華，中國古代軍戎服飾，上海古籍出版社，1995，p.73
- 49) 전계서, p.123
- 50) 周汛·高春明 편저(1996)，中國衣冠服飾大辭典，上海辭書出版社，1996，p. 95.
- 51) 「老乞大朴通事謬解」，亞細亞文化社，1973，p.25
 江西十分上等真結綵帽兒上綴着上等玲瓏羊脂玉頂兒，又是个鵠鷄翎兒。
- 52) 周錫保(1979)，p.72
- 53) 周汛·高春明 편저(1996)，p.56, 98
 (宋)彭大雅，(宋)徐霆疏証「黑韃事略」：
 其冠……婦頂姑姑，徐霆疏証：霆見姑姑之制，用樺木包以紅綢金帛，頂之上，用四五尺長柳枝，或銀打成枝，包以青氈，其向上人，則用我朝翠花或五采帛飾之，令其飛動，以下人，則用野鷄毛。
- 54) 전계서, p.98
 (明)錢謙益編，「列朝詩集」，乾集之下，第8頁，上海古籍出版社，1989.
- 55) 전계서, p.94
- 56) (清)張廷玉等撰，「明史」 輿服志 三，中華書局，1974，p.1634.
 明代文官之冠，一品至九品，以冠上梁數區別。公·侯·伯所戴“蟬冠”，俱插雉尾。
- 57) 전계서, p.1638
 (正德十一年)都督江彬等承日紅笠之上，綴以染天鵝翎，以爲貴飾。貴者飄三英，次者二英。
- 58) 전계서, p.94
- 59) 趙爾巽等撰，「清史稿」，卷一百三，輿服志二，中華書局，1977，p.3058
 凡孔雀翎，翎端三眼者，貝子戴之。二眼者，鎮國公·和碩額駙戴之。一眼者，內大臣·一·二·三·四等侍衛，前鋒·護軍各統領·參領，前鋒侍衛，諸王府長吏，散騎郎，乙等護衛，均得戴之。翎根并綴藍翎。貝勒府 司儀長，親王以下二·三等護衛及前鋒·親軍·護軍校，均戴染藍翎。
- 60) 周汛·高春明(1996)，p.96
- 61) 신경섭, 중국 소수민족의 모자, 「BESTO」三國文化情報志, p. 51
- 62) 「中國民間美術全集」穿戴編 5 服飾卷 上，山東教育出版社·山東友誼出版社，1993，p.20
- 63) 신경섭, 경극 〈獨木關〉의 연개소문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64
- 64) 周錫保(1979)，p.72